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은 가장 법다운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보공양 후원은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의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요양비, 수행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35분의 교구스님께 신도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공양을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교의 수호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후원 동참자

김부임 김태원 김범기 이시영 김순자 김창순 최규연 김귀옥 김규영 최성락 박근식
민혜숙 김명숙 김완구 박순식 변채현 배미정 오명진 서현숙 김태홍 이은자 류소현
신미자 권구영 한경희 유상완 연용덕 안미영 탈골암

승보공양 동참 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6 | 10



보덕화상과 비래방장



고구려 말기인 무덕 정관(627~649) 연간에 사람들이 오두미교(五斗米敎 =도교)를 다투어서 신봉했다.
당나라 고조高祖는 이 소식을 듣고, 도사를 보내어 천존상天尊像을 붙이고 도덕경道德經을 가르치게 하니
왕은 백성과 함께 그것을 들었다. 그때는 곧 제 27대 영류왕 즉위 7년인 무덕 7년 갑신(624)이었다.
이듬해 고구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불교와 도교 배우기를 청하니, 당나라 황제 고조가 이를 허락했다.
고구려 보장왕(642~668)이 왕위에 오름에 이르러 또한 유교 · 불교 · 도교를 모두 일으키려 하니,
그때 총애받던 재상 개소문蓋蘇文이 왕에게 말했다.
"유교와 불교는 다 성하나 도교는 성하지 못하니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구합시다."
이때 보덕화상은 반룡사盤龍寺에 있었는데 도교가 정도(正道=불교)에 대치함으로써
국운이 위태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여러 번 왕에게 간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신력神力으로써 살고 있던 방장실方丈室을 날려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완산주 고대산 경복사에 옮겨
거기서 살았다. 그래서 비래방장飛來方丈이라 한다.
이때는 곧 영휘 원년 경술(650) 6월이었다. 얼마 후 668년에 고구려가 망했다.
그의 제자 무상화상無上和尙은 김취金趣등과 함께 금동사金洞寺를 세웠고, 적멸寂滅, 의융義融 두 법사는
진구사珍丘寺를 세웠고, 지수智藪는 대승사大乘寺를 세웠고, 일승一乘은 심정心正 · 대원大原 등과 함께
대원사大原寺를 세웠고, 수정水淨은 유마사維摩寺를 세웠고, 사대四大는 계육사契育寺을 세웠고,
명덕明德은 연구사燕口寺를 세웠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10 | 통권 417호



2 **벽화 이야기** 보덕화상과 비래방장
4 **이달의 법문** 오색 단풍 물드는 계절, 오온의 무상함을 보라 大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나는 시간"
혜능스님의 가르침에서 찾는 일상의 평온 정덕스님
8 **수행여화** 앉은 그 자리가 극락이네 현진스님
11 **경전 구절 산책** 잘 생각하기; 생각을 통한 수행〔6념〕 원경스님
14 **인도 건축 미술 순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안필섭
17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18 **大법주사 가을국화향연**
19 **나한도량 성지순례 안내 / 大법주사 행사 일정**
20 **大법주사 소식 / 말사 소식**
21 **광명진언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미륵재일기도 / 지장재일기도 / 생일불공**
22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 안내**
23 **大법주사 창건 1474주년 개산대재**
24 **승려복지 후원 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10월호 통권 417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보은 라 00002)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정덕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大법주사

오색 단풍 물드는 계절, 오온의 무상함을 보라

지명 대종사 大법주사 조실



속리산俗離山 大법주사 골골이 가을빛이 깊어지고, 만산홍엽 단풍이 온 도량을 물들입니다.
산사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붉고 노란 잎들이 저마다의 색을 다투어 자랑하니,
속세俗世의 많은 이들이 그 화려한 풍경을 즐기고자 모여듭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10월의 단풍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온五蘊의 무상無常함을 몸소 보여주는 거룩한 법문입니다.
봄날의 푸른 잎으로 피어난 색色은 가을에 이르러 오색단풍으로 변하고,
찬바람이 불면 미련 없이 가지를 떠나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풍을 보며 느끼는 수상행식受想行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대상에 집착하는 느낌과 생각, 의식조차 찰나에 사라질 뿐입니다.
물리적인 나뭇잎의 변화나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미세한 마음작용 모두가
항상恒常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오온의 무상한 흐름입니다.
화려하게 물든 단풍을 보며 아름답다 찬탄하지만, 그 빛깔은 한순간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오온도 결국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덧없이 스러지는 잎사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온이 본래 비어있어(五蘊皆空) 한시도 머무름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我)에 집착하여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길 바랍니다.
부귀와 명예, 욕망을 향해 질주하며 그 무상한 나를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듯, 집착하는 오온의 나 또한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상한 모습에 집착하니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색 빛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마치고 인연 따라 미련 없이 비워내는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낙엽이 스스로를 비워 거름이 되듯, 우리도 오온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미움을 내려놓으며, 어리석은 망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비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 채워집니다.
가을 산사의 서늘한 바람으로 스러지는 낙엽을 보면서
오온의 헛된 나를 돌이켜 내 안의 청정한 자성自性을 바라보십시오.
10월의 붉은 단풍보다 더 찬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본래부터 지닌 불성입니다.
가까운 도반과 이웃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추고 베풀 때, 세상은 한 떨기 단풍보다 아름다워집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한 번의 정성 어린 염불과 한 번의 자비로운 보시가 불성을 밝히는 힘입니다.
속리산 단풍이 붉게 타오르듯, 불자님들의 신심도 뜨겁게 타오르길 바랍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본래의 맑고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 정진하십시오.
그 청정한 자성을 친견할 때, 거기가 바로 극락정토가 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나는 시간” 혜능스님의 가르침에서 찾는 일상의 평온

정덕스님 大법주사 주지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만추의 서늘함이 온몸에 스며드는 10월입니다.
大법주사의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주하는 동트기 전 하늘은 시리도록
맑고 청명하기만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표명하려는 듯,
별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자면,
우리 마음과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허공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옛 조사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육조 혜능스님입니다.

혜능스님은《단경壇經》에서, 자성이란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참된 나의 본성’이며,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이미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설파하십니다.
우리의 자성自性은 본래부터 청정함 그 자체이기에, 더럽혀진 적도,
흔들린 적도 없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그렇기에《육조단경》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님에도 유일하게 ‘경經’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어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禪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단경壇經》은 광주廣州 대범사大梵寺에서
대중들에게 무상계無相戒를 주며 설한 내용으로, 명칭 또한 단壇 위에서 설법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연 ‘자성법문自性法門’입니다.
자성自性은 밥 먹고, 차 마시고, 화내고, 눈물 흘리는 그 일상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명無明의 티끌에 가려져 내 안의 보물을 모른 채
남의 보물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불어오면 오는 대로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바람 끝을 붙잡고 ‘왜 이 바람이 불어오느냐’며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불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본래 고향,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 아는 것이 禪이요 해탈인 것입니다.
밖으로 온갖 경계에 끌려다니며 마음을 닦는다고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찾는 부처는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가장 깊은 곳,
본래 갖추어져 있는 참나[眞我], 즉 자성불自性佛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의 고요함은 변함없다’고 자성의 자리를 잠시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밥을 먹는 바로 이 일상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밝고 고요한 본성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과 일상의 경계 속에 있으면서,
10월의 맑은 새벽의 하늘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밝게 빛나는 별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발걸음마다 참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앉은 그 자리가 극락이네

현진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우리 정원에 목수국을 한가득 피워 놓았다.
지금 그때를 만나 한창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초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풍경이라 자꾸 눈길이
간다. 한여름에 피어야 할 꽃이
초가을에 만개했으니 매일매일 꽃동산이다.
다른 목수국 명소는 이미 꽃이 졌다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름꽃이 가을꽃으로 변모한 것인데
여기엔 나만의 마법이 있다.
올해 5월 중순쯤에 한창 올라오는
목수국 꽃대를 잘라 주었다. 그냥 두었더라면
7월에 꽃이 피었을 테지만 다시 꽃대를
키워야 하므로 개화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9월에 피는 목수국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한여름의 개화는 뜨거운 햇살에 꽃송이가
타기도 했고 정원에 나가서 구경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을 문턱에 꽃을
피울 요량으로 꽃대를 살짝 조절해 준 것인데
이제야 그 결실을 본 것이다.
이런 덕분에 요 며칠 사이 일제히 얼굴을 내밀며
장관을 연출하는 중이다. 이래서 누구는 '떼창'이란
표현을 쓰더라.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합창하듯



풍성하게 피었으니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얼마나 눈부시게 피었는지 해가 져도 꽃등이 되어
주위가 환할 정도다. 이러한 꽃 조명 아래서
연이틀 내내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정원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서성였다.
그렇게 황홀한 꽃향기에 취해 잠드는 시각도 잊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꽃밭에 나가 풀을 매고
물을 주었다. 이슬 젖은 얼굴이 더 청초하여
꽃잎 다칠까 조심스러워 쓰다듬지 못하고
눈인사만 했다. 아침의 맑은 기운이 꽃길 따라
넘쳐나는 것 같았다. 일출을 정원에서 맞이하는
기쁨은 뭐라 설명할 수 없다.
이럴 땐 충만한 기쁨이 안개처럼 스며든다.
소소한 식물의 신비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정원을 곁에 두며 즐거움으로 삼는 이유다.
옛 어른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다가,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했던데 근래의 내 일상이
꼭 이렇다. 낮에는 꽃 속에서 노닐다가 밤에는
그 꽃 품에서 잠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꽃을 떠난 다른 생각은 일절 없다.
온통 마음이 꽃밭에 가 있는 것이다.
꽃과 함께 하루를 열고 꽃과 더불어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삶의 율동이 나는 좋다. 누구에게도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흥미로운 일을
안겨준다 해도 지금의 생활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정원 일만큼 오래 몰두하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출가 이후 여러 분야에 기웃거려
보았으나 정원 일 이상으로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없었다. 흙을 만지며 생명을 지켜보는 계절의
시간들이 삶을 위로하고 보듬어주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눈을 뜨면 정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자체를 즐기며 지내고
있다. 어제는 전지 톱을 들고 뒷길의
쥐똥나무 울타리를 잘라주는 작업을 하였는데
오늘까지 어깨가 아프다.
18세기 조선에 실존했던 화가 김덕형은 새벽부터
밤까지 꽃만 보며 꽃 그림을 그렸던 인물로
유명하다. 화원花園에서 꽃만 바라보며
온종일 꿈쩍도 하지 않다가 아예 꽃 아래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는 손님이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은 미친놈이거나
멍청한 놈이라 조롱했단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꽃이 열광했기에 역사에 길이 남을
'백화보白花譜'를 저술했을 것이다.
이 화집에는 세밀하게 줄기 하나 솜털 하나까지
그렸다 알려졌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는 꽃에 미친 바보였기 때문에 꽃의 화가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인들은 그를 일러
'화벽花癖'이라 불렀다. 뭐든지 그 분야에
광인이 되어야 일가를 이룰 수 있는 법.
서화나 문예에 미칠 정도로 천착하는 것을
선비사회에서는 '벽癖'이라 기록하고
높은 기예라 칭송했다. 이러했기에 김덕형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자신만의 방식으로
꽃을 묘사했을 것이다. 오직 꽃밖에 몰랐던
그는 누가 뭐래도 진정으로 꽃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좋아하거나 미쳐야
그 일을 신나고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다.
몇 년 전 목수국으로 정원을 단장하면서
"여기 공간을 이 꽃으로 '칠갑'할 거다" 선언했었는데
그 계획이 올해 비로소 완성된 셈이다.
뭐든 처음엔 시시하고 볼품없으나 세월의 다리를
건너면 어느새 풍요로워지는 게 정원의 연금술이다.
지금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꽃밭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전에 꽃밭을 걷는 이들에게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저의 '손길'입니다."하여
웃었던 적이 있다. 이곳뿐 아니라 어떤 정원이든
주인의 손길과 정성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오늘 낮에 꽃밭을 거닐던 이가
"여긴 어디든 앉으면 극락이다"는 말을 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꽃천지 극락이 예 있는 것이다.
극락과 천국이 꽃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꽃은 이상향의 상징이다.
방금 방문한 손님은 "기분 우울하여 절에 왔는데
꽃을 보고 풀어졌어요"라고 하더라.
이것이 내가 꽃을 가꾸는 보람이며 목적이다.
앞으로도 이 풍진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꽃이 전하는 위로의 법문을 들려주고 싶다.
그나저나 봉사자들은 어느 꽃밭에 숨어
풀을 매는지 보이지 않는다.
벌써 고추잠자리가 낮게 날고 있다.

●●경전 구절 산책

잘 생각하기 ; 생각을 통한 수행[6념]

원경스님 大법주사 강주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홀로그램우주 안에서 스스로 희로애락하는
중생의 고통스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잘하게 되면
망상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뿐이다. 그 중에 생각은
번뇌 망상의 일차적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을 잘 다스리면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홀로그램우주 안에서 스스로
희로애락하는 중생의 고통스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잘하게 되면 망상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번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수행이란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의 생각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법으로
대치[replace]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제자 마하남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로서 배우는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어 위로 향해 올라가도록
도道에 매진해 열반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여섯 가지 생각[六念]을 닦아 나아가
더욱 매진하여야 안온한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몹시 굶주리게 되어
몸이 야위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알맞게 먹으면
그의 몸이 살찌고 윤택해지는 것처럼,
비구가 배우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어 위로 향해 올라가도록
도에 매진해 열반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섯 가지 생각[六念]을 부지런히 닦아야
안온한 열반을 빨리 얻게 될 것이다.
《잡아함경》 제33권 931. 〈수습주경修習住經〉

이어서 경전에서는 생각의 범위와 방법을
상세히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
염불念佛 ; 여래의 열 가지 성스러운 명호[如來事]를
생각함, **염법念法** ; 세존께서 설하신 법法과
율律을 생각함, **염승**念僧 ; 4쌍8배四雙八輩의
현성賢聖에 대해 생각함, **염계**念戒 ; 정계淨戒

불괴계不壞戒를 생각함, **염시念施** ; 보시하는
일을 생각함, **염천念天** ; 4대천왕四大天王
33천三十三天 등 하늘의 일을 생각함.
이상 여섯 가지의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6념수행이다.
근본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의 여러 곳과 대승불교의
여러 경론에서도 6념에 대해 정형구로서 곳곳에서
설해지고 있다. 즉《대지도론》제22권,《해탈도론》
제3권,《대승의장》제20권 등에 6념의 수행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6념은 대소승의 모든
불교권에서 중요하게 여긴 수행법으로 보인다.

모든 중생은 실제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릇되게 여긴다.
그러므로 보살은 그러한 중생들을 보고 곧 그들로
하여금 6념(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을
닦게 하여 진실한 진리의 법을 알아서 깨닫게 한다.
《대방등대집경》

한편 생각하기 수행법의 다른 방법으로 4념처법이
있다. 4념처의 수행법은《장아함경》〈대념처경〉에
해탈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써 설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쿠루국의 캄마사담마라는 성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이 청정하게 되고,
근심과 탄식을 벗어나기 위함이며, 고통과 슬픔을
소멸시키고, 올바른 수행방법을 얻고,
열반을 현증現證하기 위한 유일한 길〔一乘道〕이니,
그것은 곧 사념처四念處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함에(身念處) 열의를 가지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함에(受念處) 열의를 가지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함에(心念處) 열의를 가지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법에서 법을 관찰함에(法念處) 열의를 가지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4념처법은 출가한 비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부방법이다.
즉 네 가지 수행의 대상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하여 생각하는 공부법이다.
반면에 6념은 모든 4부대중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부법식이라고 하겠다.
6념 가운데 염불법이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발전하였다. 염불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 및
여래십호를 생각하면서 마음집중〔定〕과
알아차림〔慧〕을 하게 되면 결국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수행법이다.
이것은 이를테면 언제 어디서나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기 수행법이다. 염불법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입으로
소리내어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창불唱佛을
염불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게 되면
그것을 입으로 부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특히 정토교에서는 임종시에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열 번 부르면 즉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염불수행의 정점頂點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좋아해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십념十念 정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타불의 48원 가운데 제18 십념왕생원〕

만일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대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 십념하면,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성중들이 그 앞에 나타나 큰 광명을 놓아 손을 내밀어
영접하며, 스스로 자신의 몸이 금강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 마치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에 저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된다.《아미타참법》

또한 경전을 독송하는 행위〔看經〕, 특히 한국불교에서
금강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이 염법수행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염불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독송하는
염법수행은 진리를 성취하는 형식과 내용의 관계로
결국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안필섭 보살사 불학연구원장

엷은 안개가 온 동네를 감싸 안고 있다. 멀리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와 웅덩이에 내려앉더니 무언가를 연신 쪼아댄다. 오늘날 라즈기르(Rajgir)는 부처님 당시 라자그르하(Rājagṛha), 한역으로는 왕사성王舍城이라 불리던 마가다 왕국의 도읍이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며 맞이한 아침은 이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흡사 경주 대릉원 주변을 거닐 때 가끔 느끼던, 오랜 세월을 품은 도시 특유의 차분함이 이곳에도 배어 있었다.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될 터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른 새벽에 눈을 떠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라즈의 차를 기다리며 1층 주인 어르신의 처소 앞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평범한 인도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을 뿐, 당연히 된장국은 없다. 여행이 제법 길어지다 보니 이제 고향의 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나 보다.

라즈를 만나 처음 찾아간 곳은 죽림정사로 알려진 웨누와나(Veṇuvana)였다. 웨누와나는 마가다의 왕 빔비사라(Bimbisāra)가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한 곳으로 전해진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실 때 자주 거처하셨던 곳이며, 불교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정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오늘날의 웨누와나에서 이천오백여 년 전의 정취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인도 유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시설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옛 흔적을 더듬으며 상상할 여지는 오히려 많지 않았다.

나는 건물이나 정원보다 오히려 정사의 입지에 눈길이 갔다. 웨누와나는 도시 남쪽 끝자락, 동서로 길게 뻗은 라즈기르의 산줄기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옛 왕사성에서 남쪽으로 산을 넘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이 일대를 지나게 된다. 산길과 평지가 만나는 요충지였던 셈이다.

그곳에 서서 주변 지형을 바라보고 있자니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왕이 소유했던 이 땅은 단순한 유원지라기보다 말을 기르거나 유사시에 대비하기에도 적합한 곳이 아니었을까. 물론 현장에서 지형을 바라보며 떠올린 추측일 뿐이다. 하지만 왕도 가까이의 넓고 요긴한 땅을 수행자들의 공동체에 내주었다고 생각하면, 빔비사라가 부처님과 승가를 얼마나 각별하게 대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웨누와나를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아자따샤뜨루(Ajātaśatru)의 스뚜빠(Stūpa)에도 들렀다. 그러나 거대한 돌과 주춧돌들이 폐허 속에 흩어져 있을 뿐 옛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유적 주변에는



죽림정사(필자 제공)



칠엽굴(필자 제공)

딱히 할 일 없어 보이는 동네 청년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둘러본 뒤 곧 자리를 떴다.

차를 타고 산 아래로 이동했다. 오늘 가장 기대하던 칠엽굴로 올라가는 길의 출발점이었다. 라즈에게 한 시간 반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우리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출발지의 너른 마당에는 좌판을 펼쳐 놓고 무언가를 파는 꼬맹이들이 가득했다. 기껏해야 여섯이나 일곱 살쯤 되었을까. 아이들이 팔고 있는 것은 샴푸와 비누, 그리고 치목齒木이었다. 우리를 발견한 아이들이 순식간에 떼로 몰려와 서로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녀석 하나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거느린 왕초인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솜사탕 장수에게 갔다. 그리고 하나씩 솜사탕을 사서 손에 쥐여 주었다. 갑자기 찾아온 횡재에 신이 난 아이들은 솜사탕을 먹느라 어느새 목욕용품을 팔아야 한다는 지령도 잊어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초도 슬그머니 다가왔다. 자기도 하나 사달라는 눈치였다. 못 이기는 척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래 봐야 이 녀석도 아직 애송이에 불과했다. 왕초의 입에도 달콤함 하나쯤은 필요할 터였다.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얼마쯤 오르고 나서야 왜 아이들이 그곳에서 샴푸와 비누를 팔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산 아래에 온천이 있었던 것이다. 그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온천과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옷을 입은 채 물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었다. 아이들은 멀리서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세면도구를 팔아 푼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라즈기르의 산들은 불교만의 성지가 아니다. 오늘날에는 자이나교의 중요한 순례지이기도 하다. 특히 인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자이나교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상업에 종사해 온 신자들도 많다. 이날도 적지 않은 자이나교 순례객들이 우리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가족들과 수행자들이 뒤섞여 산길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산이 이천 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 중턱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라즈기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아침에 도시를 감싸고 있던 안개도 어느새 많이 걷혀 있었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니 절벽 아래로 약간 너른 공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절벽 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칠엽굴이었다.

부처님께서 꾸쉬나가르(Kuśinagara)에서 열반하신 뒤 승가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도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흩어질 수도 있었던 비구들을 추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확인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나선 사람이 상수제자 마하까샤빠(Mahākāśyapa), 곧 대가섭大迦葉이었다.

그렇게 오백 명의 비구가 왕사성에 모였다. 후대 불교 전승에서 제1차 결집이라 부르는 사건이다. 결집은 아자따샤뜨루 왕의 후원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 장소로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 칠엽굴이다.

실제로 이곳에 와 보니 왜 하필 이 장소가 선택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칠엽굴은 죽림정사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산을 상당히 올라와야 한다. 왕사성 시가지와는 떨어져 있고, 아래에서는 쉽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다. 더구나 산 위에서는 왕사성 일대를 넓게 내려다볼 수 있다.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동굴 앞에 서니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정말 이곳에 오백 명이 모였을까?'

눈앞의 공간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오백 비구의 결집'이라는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그리는 거대한 회합의 모습과 실제 칠엽굴의 크기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 물론 지금 남아 있는 지형이 당시와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모든 비구가 한 동굴 안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숫자나 공간의 크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스승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더 이상 부처님께 찾아가 "제가 들은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없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던 스승의 말을 꺼내 놓고 서로 확인해야 했다. 전승에 따르면 마하까샤빠가 묻고, 우빨리(Upāli)가 율을 송출했으며, 아난다(Ānanda)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송출하였다. 그리고 함께 모인 비구들이 그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후대의 수많은 불교 경전 첫머리에 반복되는 이 말은 어쩌면 이 순간의 기억을 상징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나는 칠엽굴 앞에 서서 한동안 그 비좁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이천오백여 년 전, 스승을 잃은 사람들이 이 산속에 모였다. 그리고 저마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냈다. 그렇게 되살려낸 기억을 서로 맞추고 확인하면서, 한 사람의 가르침은 여러 세대를 건너 전해질 공동의 기억이 되어갔다. 그 기억의 한 자락을 좇아, 이천오백여 년 뒤 나 역시 왕사성의 산중에 서 있었다.

23·24·25년 3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

속리산 大법주사

마음을 비우다 심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 108 염주 or 단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휴식형
- 大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 저녁/새벽예불
- 세조길 걷기

주말 체험형
- 선명상 (1박2일)
- 108 염주 만들기
- 수정봉 등반

명상 심화형
- 사유와 명상 (2박3일)
- 호흡 명상
- 차담, 명상의 일상화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나한도량 성지순례 안내

나한도량 성지순례는 나한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각자의 서원을 발하여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거룩한 구법求法의 길입니다. 나한님의 영험한 가피를 입고 가정의 평안과 자손창성, 그리고 각자의 서원을 성취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5차 성지순례** – 송광사 (10월 6일 화요일)
모집인원 – 청주/대전/보은 각1대씩
청주지역 보문심 010-5498-5546 / 환희주 010-9423-3858
대전지역 자비심 010-9559-9223 / 보은(속리산)-원주실
동참보시 – 1인 5만원(당일승차시 팀장님께)

2026. 10 大법주사 행사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8.21 국군의날	2 22	3 개천절 23 광명진언기도
4 24 관음재일	5 25 대체공휴일	6 26 5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7 27	8 한로 28 월성대종사다례	9 한글날 29 가을국화향연 개산대재	10 30
11 9.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12 2	13 3 신중기도회향	14 4	15 5	16 6	17 7 천년의 향기 다라니독송기도
18 8 약사재일	19 9	20 10	21 11	22 12	23 13 상강	24 14
25 15 보름	26 16 미륵재일 이두대종사다례	27 17	28 18 지장재일	29 19	30 20	31 21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 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7시 30분, 8시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大법주사 소식







3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 무현스님 특강(육조단경) — 9월 초하루법회






명진스님 3재 — 신도회 임원회의 — 어르신 점심나눔 행사






어르신 점심나눔 행사 — 국가유산청 현장 설명회 — 4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4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 추석 합동차례 — 금오대종사 다례제







금오대종사 다례제 — 팔상전 탑돌이




팔상전 탑돌이

●●말사 소식

포교소 태극한국사 대표자
재임발령(남전스님)



광명진언기도 – 10월 3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릍타야 훔"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빛을 관상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깨닫는 진언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10월 11일 일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차량운행-보은/청주/대전지역〉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정성을 다해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간의 평안과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매월 새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고 복을 기원하는 신심의 발로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10월 17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중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륵재일기도 – 10월 26일 월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자비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용화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기도로 매월 음력 16일 봉행됩니다.

지장재일기도 – 10월 28일 수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차량운행-청주지역〉

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살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발원 기도입니다.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생일불공

더없이 귀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께 축원올리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문자 • 카톡 010-6732-0133으로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당일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大법주사 기도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 안내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무량한 공덕의 불사에 인연을 맺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법주사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륵전 내부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랫동안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와 발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부처님의 금빛 안색이 퇴색되고 도포가 마모되어
금번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형상을 새롭게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몸에 금 한 조각을 올리는 정성은
법계의 지극한 공덕이 되어,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선망조상,
그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무량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세생생 삼대의 가족이 공덕의 보탑을 쌓는 이 거룩한 인연에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수희 동참을 발원합니다.

동참기간 2026년 **6**월부터 2027년 불사 원만 성취 시까지
불사동참 1인 1구좌 **10**만원
동참계좌 우체국 120-0001-36241 법주사
접수안내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010-6732-0133(문자접수)

大법주사 창건 1474주년 개산대재

大법주사 개산대재는 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大법주사의 역사와 법맥을 되새기며,
창건주 의신조사를 비롯하여 진표율사와 벽암조사 등 大법주사의 창건과 중창 · 중흥을 이끌어 온
역대 조사 스님들의 공덕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정성스러운 공양과 다례를 올리며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도록 이어지며 모든 중생이 지혜와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발원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개산대재는 불자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여
불교문화와 전통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년의 법맥을 잇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오늘에 되새기는 것,
그것이 개산대재가 지닌 참된 의미입니다.

- **일 시** : 불기 2570년 **10**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속리산 大법주사 경내 일원

주요행사

백미백락 및 산사의 미학 : 오전 11시 (사찰음식 및 세계 각국 음식 문화 체험)
도민 행복 숲속 음악회 : 오후 2시 30분 (가수 김수찬, 신계행, 함수연 명창 등 출연)
※ 국화전시기간은 10월 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입니다.





